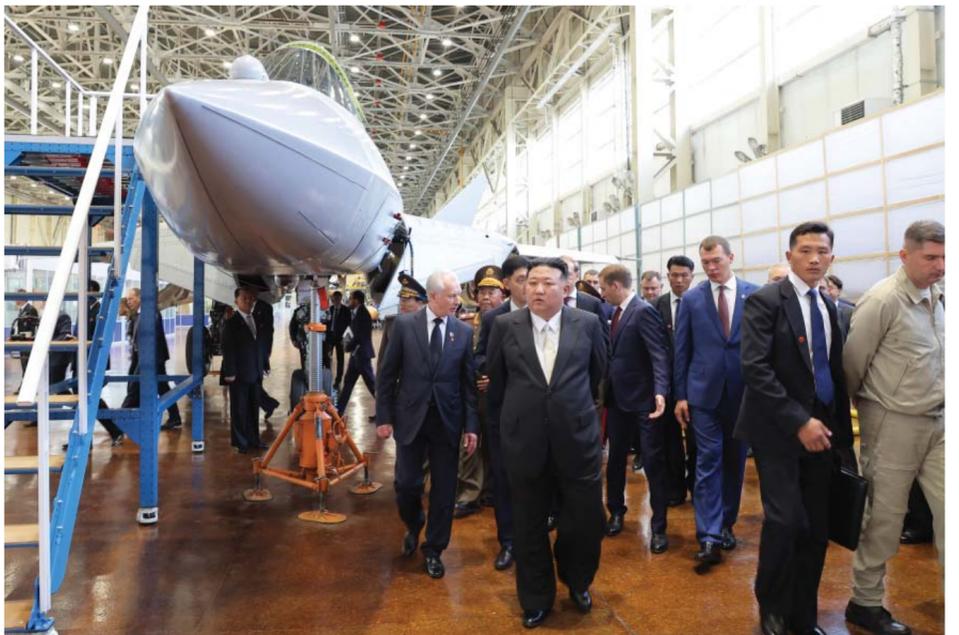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유.아.가가린명칭 콰소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 연방 원동지역의 주요공업도시인 콰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도착하시여 유.아.가가린명칭 콰소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5일 아침 콰소몰스크-나-아무레역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역에서 알렉산드르 꼬즐로브 로씨야자연부원생태학상, 미하일 제그짜료브 하바롭스크변방행정장관, 알렉산드르 조르니코 콰소몰스크-나-아무레시장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민족의상을 한 여성들이 풍습대로 빵과 소금을 드리였다.

귀여운 어린이가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두 나라 기발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로씨야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로씨야연접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유.아.가가린명칭 콰소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으로 향하시였다.

1934년에 창립되어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장거리폭격기들을 비롯한 각종 비행기들을 만들어 파시즘을 격멸하는데 크게 공헌한 공장은 로씨야에서 《Cy》

계열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공장가운데서 규모가 제일 큰 기업체로서 5세대전투기 《Cy-57》을 비롯한 여러 전투기들과 려객기들을 생산하는 로씨야국방공업과 항공운수산업의 중추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장에서 제니스 만푸로브 로씨야연방정부 부수상 겸 공업부역상, 유리 슬류샤리 로씨야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 알렉산드르 베카르슈 유.아.가가린명칭 콰소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 지배인이 맞이하였다.

공장을 찾아주신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여 여성공업원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공장종업원들이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정을 안고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배인의 해설을 들으시며 설계연구소와 전투기동체조립직장, 비행기날개생산직장, 도장직장, 려객기조립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생산현장 곳곳에 모셔져있는 21년전 이 공장을 찾았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보시면서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투기동체조립직장에서 시험비행사들을 만나주시고 《Cy-57》전투기에도 오르시여 5세대전투비행기의 기술적특성과 비행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려객기에 오르시여 성능을 알아보시고 《Cy-35》전투기의 시험비행모습도 보여주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높은 선진기술과 강한 정신력으로 우수한 생산성과를 달성하여 나라의 항공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로씨야비행기제작공업의 풍부한 자립적잠재력과 현대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취적인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는데 대하여 고려하시면서 앞으로 더 높은 생산장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따듯이 고무 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참관을 기념하여 구내에 전시한 《Cy-27》과 《Cy-30》비행기앞에서 조로 두 나라 동행간부들과 함께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공장방문을 환영하여 유리 슬류샤리 로씨야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이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회는 따듯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 되였다.

오찬이 끝난 후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이 친절히 안내해주고 환대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참관을 기념하여 방문록에 《로씨야항공 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 2023. 9. 15 김정은.》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로씨야연방정부 부수상 겸 공업부역상과 하바롭스크변방행정장관, 로씨야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은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훌륭한 비행기교를 보여준 시험비행사를 만나 축하해주시고 《Cy-35》전투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로씨야의 항공기술이 외부의 잠재적위험들을 압도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시하고 공장의 앞으로의 발전성과를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오후 로씨야간부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다음방문지를 향하여 출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연방 올라지보스토크시를 방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6일 로씨야연방 올라지보스토크시를 방문하시었다.

현지시간으로 9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전용헬기가 아르좁-쁘리모르스키[역구내]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알렉산드르 꼬즐로브 로씨야자연부원생태학상, 올레그 꼬쨤야코 연해변강행정장관, 바체슬라브 쿨 아르좁시장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접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하는 귀여운 로씨야어린이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라지보스토크시 방문의 첫 일정으로 크네비치군용비행장을 참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세르게이 쇼이구 로씨야연방 국방상이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연방무력특혜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접나온 알렉세이 크리보루츠크 국방성 부상, 니콜라이 예브레노브 해군총사령관, 세르게이 꼬빌라슈 장거리비행대사령관을 비롯한 군지휘성원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각종 전략폭격기들과 다목적전투기, 추격기, 습격기를 비롯하여 로씨야공군이 장비하고있는 현대적인 군용비행기들을 돌아보시었다.

세르게이 꼬빌라슈 장거리비행대사령관은 크네비치군용비행장을 방문하여주신 김정은원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전시된 군용비행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시된 군용비행기들을 돌아보시면서 전술기술제원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으며 전투적성능과 탑재된 항공무장장비들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로씨야군 지휘성원들과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상 장거리비행대사령관은 비행장을 방문해주신데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하시었다.

태평양함대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신뢰심을 안고 최대의 성심을 다해 영접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접나온 해군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로씨야연방무력 특혜공군명예위병들과 태평양함대 명예위병들의 경의를 받으시며 프리게트함 《마르шал 샤보슈니코프》호에 오르신였다.

《마르шал 샤보슈니코프》호 함장이 영접보고를 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예브레노브 해군총사령관으로부터 합의 해상작전능력과 주요무장장비들, 전투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시며 종합지휘실과 조타실 등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태평양함대 장병들이 용감한 전투정신과 영웅성을 발휘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태평양함대참관을 기념하여 선물을 전하시고 방문록에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 김정은 2023. 9. 16》이라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평양함대방문을 환영하여 세르게이 쇼이구 로씨야연방 국방상이 오찬을 마련하였다.

오찬은 시종 친근하고 동지적인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은 성의어린 선물을 드리었다.

오찬이 끝난 후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담화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고 국가의 자주권권리와 발전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고있는 로씨야무력의 발전상과 현대성, 영웅성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쇼이구 국방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평양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각별한 정을 받아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연방을 방문하시어 정의의 위업실현에 펼쳐나신 로씨야군대와 인민을 고무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지역 및 국제군사정치정세에 대한 견해들을 공유하시고 조로 두 나라 무력과 국방안전분야에서의 전략전술적협동과 협조, 호상교류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저녁 올라지보스토크시민들과 함께 마리인스키극장 연해변강분극장에서 발레극 《잠자는 숲의 미녀》를 관람하시었다.

로씨야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으시고 올라지보스토크시를 방문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조로 두 나

라 간부들과 함께 극장조데석에 나오시자 올라지보스토크시민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름답고 우아한 예술적형상으로 발레무용의 감화력을 실감있게 보여준 공연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출연자들과 극장측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7일 원동련방종합대학, 연해변강수족관, 아르니까생물사료합성공장을 참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오전 원동련방종합대학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장으로부러 대학의 규모와 교육체계, 앞으로의 발전계획과 그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들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동련방종합대학은 자신께서 뿌낸대통령과 처음으로 상봉한 곳이고 우리 류학생들이 있는 곳이어서 더욱더 친근해지는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이 앞으로 더욱 훌륭한 발전을 이룩할 것과 조로과학기술분야의 협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원동련방종합대학 총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자기들의 대학에 모신것은 가장 큰 영광으로 된다고 하면서 김정은원수님께 대학방문을 기념하여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대학구내의 해변가에 전개된 전시관들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해변강전시관과 공업무역성 전시관을 참관하시면서 로씨야인민이 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괄목할만한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3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에 도착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9월 19일 저녁 전용 열차로 수도 평양에 도착하시었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원수님께서 안녕히 돌아오실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온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마음이 환희의 꽃바다를 이룬 평양역은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원수님께서 타신 전용열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쌓이고쌓인 그리움이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열차에서 내리시어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환영군중들은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어 국경을 넘으시는 시각에도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성과를 축원해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그 새벽에도 제일먼저 인민들에게 귀국인사를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기를 목메어 부르며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원수님께 남겨어린이들이 향기그옥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은 조로 친선의 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외혁명활동을 벌리시고 안녕히 돌아오신 김정은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 올라지보스또크시를 방문하시었다

(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원동련방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우리 류학생들을 만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류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세심히 헤아려주시며 조국은 동무들의 학업 성과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룡성변영에 한몫 단단히 하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 혁명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류학생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작별인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어 연해변강수족관을 참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곱등어관에서 환골등어를 비롯한 바다동물들의 재주를 보여주시고 수족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해변강수족관이 부원대통령의 직접적인 발기와 관심속에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과학연구기지,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이어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올라

웬철요관장이 친절하게 안내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라지보스또크시방문을 환영하여 알렉산드르 꼬즐로브 로씨야자연부원생태학상과 올레그 꼬페야코 연해변강행정장관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올라지보스또크시 예술인들의 환영공연이 있었다.

연회는 시종 친선과 우의의 정이 차넘치는 따듯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회가 끝난 후 신홍철대사와 조석철총령사, 총령사관 성원들을 만나시고 당의 대외정책을 받들고 해외에서 헌신적으로 사업하고있는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날 오후 아르니카생물사료합성공장을 참관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장에 대한 종합해설을 들으시고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신 다음 회사간부들과 따듯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공장종업원들의 마음을

담아 게네랄로브총재가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장방문을 기념하여 아르니카생물사료합성공장 유한책임회사 총재와 총사장, 연해변강행정장관과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라지보스또크시방문을 마치시면서 로씨야의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친절하게 맞이하고 안내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17일 올라지보스또크시를 출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일정 마지막참관지인 올라지보스또크시에 연 2일간 체류하시면서 군사과 경제, 과학, 교육, 문화분야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었다.

조로관계의 강화발전사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고 귀로에 오르시는 김정은 원수님을 환송하는 의식이 아르폼-브리모르스끼1역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로씨야련방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무력특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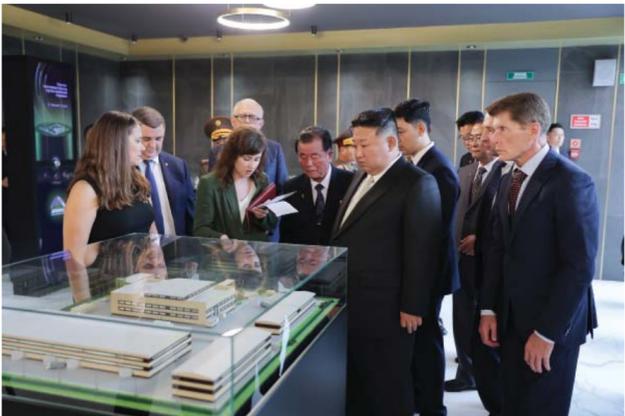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환송나온 로씨야의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로씨야방문의 전기간 부원대통령과 로씨야지도부와 인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가는 곳마다 극진히 환대해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면서 로씨야의 변영과 인민들의 복리를 축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타신 전용열차는 친근한 로씨야벗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출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이번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동지적우의와 전투적 단결에 뿌리를 두고있는 전통적인 조로선련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는 계기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9월 2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 공식친선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 방문에 대한 귀환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전 로씨야연방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로씨야연방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신데 대한 상세한 정형이 통

보되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조로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략적높이에 올라서고



세계정치지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보고에서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방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망적인 조로

관계발전계획들이 소개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방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해외방문성공과를 열렬히 축하

김정은원수님께서 진행하신 대외활동성공과를 실천적으로,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치국의 높은 평가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예로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방문성공과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실천단계에서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며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데 대하여 포치하시면서 각 분야의 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조로 해당 부문들사이 긴밀한 접촉과 협동을 강화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진행하신 대외활동성공과를 실천적으로,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연방방문을 수행한 대표단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20일 로씨야연방방문을 수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씨야연방

방문을 보좌해드린 무상의 영광을 안고 꿈만같은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머나먼 외국방문의 나날 정력적인 대외활동과 초강도렬차집무로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

오시며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김정은원수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로씨야방문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대표단성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원수님께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방문성공과를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방문성공과를 축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9월 20일 저녁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반제자주를 리념적기초로 하는 조로관계

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사변적계기로 높이 평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의 복리와 공화국의 국익과 번영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였다.
연회에는 김정은원수님의 해외방문을 수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연설자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방문성공과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고 축하해드리면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진짜 국력을 보았습니다

재증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

아름답고 진실하며 마스하고 유정한 얼굴들. 지어 황홀하게까지 느껴오는 조국인민들의 웃음어린 모습은 경사스러운 9월과 더불어 더욱더 나의 눈길을 끌어 당깁니다.

남달리 감정이 풍부하고 정서가 풍만한 인민이어서 펼쳐진 웃음의 화폭이었습니까.

세인이 매혹되고 세계가 반하게 되는 이 웃음의 세계에 존엄로운 공화국의 진

시련속에 더 높이 울려 퍼진 인민의 웃음

나에게는 조국이 그리울 때마다 펼쳐보 는 두터운 사진첩들이 있습니다.

수십차에 이르는 조국방문의 나날에 내가 직접 찍었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국인민들의 인상깊은 모습들이 담겨져있는 사진첩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훌륭한것을 꽃에 비유합니다.

하나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꽃. 세세에는 없고 오직 조선에만 있는 꽃이 있습니다.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서방의 한 대표단은 인터넷에 올린 인상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은 참으로 웃음이 가득한 나라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만족해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다.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공화국에 대한 외국된 선전에 불과한 수많은 사람들은 조국에 한번 와보고 제일 놀라워하는것이 바로 인민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꽃입니다.

여러 차례의 조국방문과정에 나도 목격한바이지만 그 꽃은 특정한 어느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닌 조국방방방곡곡에 만발하고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니 궁궐같은 새집의 주인공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공화국각지의 인민들의 웃음넘친 얼굴들이 나를 울려다줍니다.

수도 평양과 도시들은 물론 심심수메와 옥야천리며 바다기슭에서도 울려나오는 새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인민들의 기쁨의 목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귀전에 막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한두해전까지만 해도 공화국에서 련이 안 들려오는 새집들이스이에 충격으로 법적 불건 세계언론들과 인터넷들도 이제는 조선의 새집들이사계절에 어느덧 습관이 돼버린듯 부러움의 목소리를 아낌없이 터칩니다.

《인터넷에 오른 북의 사진들을 보면 기존의 낡은 주력들을 허물고 새롭고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을 곳곳에 건설하여 빠른 시일에 완공하였으며 련이온 입사모임과 새집들이가 펼쳐져 (새집들이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우리는 제집마련은 꿈에 불과하고 청년들은 집을 구하려고 령혼까지 팔아 모아 돈을 마련하는데 북은 공짜로 집을 준다.》

《북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저런 고급아파트에서 다 살고, 북은 미국이 아무런 제재도 웃으면서 새 아파트도 짓고 정말 잘사네.》

《저런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이 신기하다. 아침에 다 북에 가자.》

...

최고의 문명을 누려도 온 나라 인민이 함께 향유해가는 모습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조선만의 량만과 회일이 피어올린 웃음꽃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사진첩을 들여다볼수록 웃어도 누구나 다 다같이 함께 웃고있는 조국이 못건디게 그림습니다.

언제나 평양의 모란봉에서 찍은 사진들에서는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로인들이 웃고있었고 평양옥아린과 예육원에서 찍은 사진들에는 외국인들이 왕족들이나 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라고 경탄한 고급자리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이 세상에 부러움없이 뛰노는 모습도 보입니다.

분수물놀이장의 사진들에서는 어른, 아이 할것없이 남녀로소 누구나 황홀한 물의 세계에 온몸을 맡기고 행복과 문명에 흠뻑 취하여 터치던 웃음소리들도 들려옵니다.

김정숙영양제사공장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사진을 통해 새로운 녀성세계, 녀성들의 천국을 보았다. 조선의 녀성으로 다시 태어나고싶다. 세상에 《로동자호텔》, 《로동자호텔》이 일어서는 조선에서는 로동이 그대로 노래로 되고있으며 일터마다에서 근로자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있다고 찬사를 터치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밝혀옵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으로 마련된 첫째들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들과 국가로부터 새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고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학생들, 감격에 겨워 자신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모습속이 국가가 학부형이 된 어머니 조국의 현실을 안아보게 됩니다.

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온 나라에 활짝 피어난 인민의 웃음꽃, 진정 그것은 인민을 제일로 귀중한 존재로 여기

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다 바쳐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원예사가 피워올린 꽃입니다.

위대한 사랑에는 훌륭한 보답이 따르

기 마련입니다. 사진에서 보게 되는 인민의 웃음꽃에

는 받아안은 기쁨만이 아닌 바치는 기쁨

이 피어올린 웃음꽃들도 있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한생을 묵묵히 바

쳐가는 성실한 사람들의 순박한 웃음,

꿈같은 청춘시절을 부강조선건설에 바치

기 위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해가

는 청년들의 얼굴마다에 피어있는 웃음

꽃은 그대로 더욱 번영할 조국의 래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노라면 조국인민들의

순결한 애국의 보복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 결심이 굳어집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뜨거운 인간애가 공기

처럼 흐르는 공화국에서 사회주의대가적

의 웃음을 더해주는 덕과 정의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은것입니다.

18살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

가 된 강선의 《처녀어머니》, 한생을

독류영예군인의 안해로 살아오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자신을 바쳐온 서재필로인

을 수많은 사람들이 친자식, 친손자가

되어 돌봐주는 화폭은 감동없는 접할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하기에 지난 시기 반공을 일삼았던

인사도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좋은 느낌으로

와 닿는 아름다운 국명, 내게는 환상의

나라이다. 나의 눈에 비친 북은 사회

전체가 한가족이었다.》고 러놓았으며 한

재미동포녀성도 《보수적시각으로 바라

보던 북에서 접한 따뜻한 인간애에 가슴

이 뭉클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

다. 인간성을 느낀게 (총북)이었던 나

는 기꺼이 (총북)이 되겠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친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라는 비옥한 토양위에 뿌리

내리고 애국과 인간애를 자양분으로 하여

대가정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미덕

웃음에 비껴 강자의 모습

유럽의 한 정치평론가는 언젠인가 인터넷잡지에서 이렇게 평한적이 있었

습니다. 《나는 조선에 가보고 완전히 감동되

었다. 그것은 서방이 말하든 어둡고 침

침한 나라가 아니기때문이다. 인민의 얼

굴마다에 비껴있는 밝은 웃음은 어딘가

신비하게까지 느껴졌다. 나는 모든 사

람들에게 웃음이 국력으로 되는 이 나

라를 방문할것을 권고한다. 현실을 보

고 그다음에 말해야 한다.》

조국의 국력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평

가라 하게 됩니다.

치열한 국력경쟁의 시대라고도 할수

있는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려면 막

강한 군사력이나 과학기술력, 풍부한

자원과 유구한 역사를 국력으로 보거나

의 웃음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공화국에서 보게 되는 웃음꽃, 이는

시련속에서도 사시장철 변함없이 피어

있는 역센 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겉고 모든것이 풍족하고 조진이 좋아

서 짓는 인민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광란으로 집과 가산이 떠내려

갔을 때에도 조국인민들의 얼굴에서는

비애와 절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전화위

복의 레일을 그려보는 락관의 웃음꽃이

피어있었습니다.

세기에 만연된 악성비루스가 공화국경

내에 류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세

界的 눈길을 보내던 우리 해외동포들의

눈가에 사람들을 쓰러뜨리던 고열보다도

더 뜨겁게 비쳐든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방역정책에 인민들모두

가 일상불란하게 움직이며 보조를 맞추

고 자기 가정보다 이웃을 생각하며 한

일의 약과 쌀, 부식물도 나누면서 웃음

짓는 락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내 조국은 이러한 인민을 어

니처럼 더 뜨겁게 품어안았으며 90여

만에 악성비루스사태를 평정하고 세

계 보건사에 특기할 기록을 안아왔습니다.

당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그들의 시련속에서도 레일을 락관하며

펼쳐놓은 인민의 웃음꽃, 이는 그 무

엇으로도 지울수 없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는 폭풍우속에서도 지지 않는

꽃입니다.

백가지 꽃이 피어있는 동산을 백화원

이라고 합니다.

웃음꽃에도 사랑으로 뭉고 믿음으로

푸르며 행복과 기쁨으로 아름다운 갖

가지 색깔과 향기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이야말로 웃음

의 백화원, 천화원이라고 할수 있습니

다. 이니 그 모든 의미를 통털어 내 조

국은 인류가 꿈에서나 그려보던 인민의

리상형이라고 부르는것이 더 좋을것입

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달려도 진리를 따

라질 못하듯이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공화국의 현실을 미화하고 헐뜯으며

막걸을 하려고 발악하여도 조국에 만

발한 인민의 웃음은 결코 가라앉지

않으며 그 꽃에서 풍겨오는 인간사랑

의 향기는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습니

다.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비판과 한숨,

절망만이 감도는 이 지구상에 공화국과

같이 이처럼 밝고 아름다운 화원, 진

정한 인민의 나라가 있다는것이야말로

인류에게는 다형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

으며 이러한 나라를 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재증동포들의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그들이 자기의 집값을 전혀 모르고있

으며 알리고도 하지 않는것이다. 공화

국의 인민들이야말로 행복들 《바로》들이

라고 하였다는 외국인들의 경탄을 끝

없이 전하며 행복한 나라의 행복한 공

민임을 다시없을 긍지로 여기는 모습

들이 되새겨집니다.

지난 10여년간 조국에 새롭게 태어나

고 수정보충된 많은 법률에 의해 조

국인민들의 웃음꽃은 날이 갈수록 더

욱 만발하고있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

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걸로

노동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온넉으로 절

대하게 하는 공화국의 육아법이 그 대

표적 실례로 됩니다.

그처럼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공화

국에서 육아법이 채택된 놀라운 소식

이 전해지자 우리 해외동포들은 물론

은 세계가 놀라워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하늘이다. 그런

데 그 하늘의 왕은 아이들이다. 어

디를 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

들의 궁전이다. 어린이들의 밝고 명

명한 모습만 보아도 공화국이 기울

이는 사람의 세계를 제갈할수 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기아와 빈궁, 분쟁

의 제일 첫째가는 희생물은 아이들

이며 인신매매의 주요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대조를 이루며 부모없는 원아들에

이르기 까지 온 나라의 어린이들이

훌륭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나라의

왕으로, 아름다운 꽃봉우리로

웃고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시작은 있어

도 그끝을 알수 없는 인민사랑의

법전들이 그대로 행복의 사진으로

여어져 두터운 사진첩이 되어

내일에 펼쳐져있습니다.

그 진실의 화폭들은 한강한강

펼쳐보노라면 년로자들의 웃음꽃도

보입니다. 조국방문시 현대적이면서도

고전미를 살려 지은 양로원을

찾았던 그제에 년로자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용융한 데해에는 원천이 있고

아름드리 푸름에는 뿌리가 있다

기 마련입니다. 세계의 공용어라고

도 할수 있는 웃음이 사라져가는

지구상에서 《만족총동 일점성》

이런듯 유독 조선에서만은

어떻게 되어 인민의 웃음이

나날이 더욱 아름답게, 더욱

만발하게 꽃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7년전 김일성광장의 높은

주적단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를 경축하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에 초대

되었던 때가 방불하게 눈앞에

어려웁니다. 이제는 평양시민들의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강국의 존엄과 국위가 빛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연방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소식은 지금 온 지구천지를 세차게 뒤흔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 그 위대한 존함은 세계 주요언론들의 지면과 화면을 채우고있으며 그에 대한 다함없는 애독과 호모, 경탄과 찬란의 목소리들은 지구 곳곳에서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에서는 김정은령도자의 현지도도를 두고 삼복칠행군, 눈보라강행군 등의 표현을 많이 쓰고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렬차강행군, 심야강행군, 연속강행군을 하였다. 지칠줄 모르고 외국방문러정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는 김정은령도자가 지닌 불같은 정열과 굳센 의지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것은 어느나라의 통신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방문로정을 날차별로, 지역별로, 대상별로 빠짐없이 보도하면서 전한 글이다.

떠나가실 때에는 조용히 가지셨지만 이처럼 돌아오실 때에는 매번 지구천지를 뒤흔드는 분, 가시는 곳,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인의 특별한 존경과 극진한 환대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광활한 대륙에 뒤흔어놓은 위인칭송열기,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권위에 대한 뚜렷한 중시이며 누리에 빛나는 강국조선의 국위, 강국인민의 존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로씨야연방에 대한 렬차적인 방문으로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가일층 강화발전시키시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정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이로써 세계는 국제정치정세흐름을 확고히 주도해나

는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때부로 실감하였으며 수령이 위대하면 나라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해진다. 렬사의 철리는 언제나 간단 명료하다.

그러나 이 길지 않은 한 문장속에 얼마나 깊고도 심오한 위대한 진리가 깃들어 있는것인가.

오늘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국가와 인민의 지위가 세계의 정점에 우뚝 솟아 빛나고 그 존엄은 누리에 떨쳐지고있다.

하기에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녕히 돌아오실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온 온 나라 인민은 반만민족사에 가장 긍지높은 시대를 펼쳐시키고 그 위용과 강대함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는것이다.

하다면 저 멀리 세기를 내

다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무쌍한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 시종 미소를 뿌리시며 항상 만장을 주관하시는 출중함과 위풍당당한, 세계의 축을 둘러시는 힘의 발산과 같은 그 역센 발걸음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것인가.

그것은 인민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에 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의 천만인민의 그 뜨거운 심장들과 빛나는 슬기, 순결무구한 애국충성을 언제나 굳게 믿으신다.

그 모든것을 하나로 모으시고 즐기게 이끌어나가시며 이 땅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강국을 건설하고계신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세겨안으시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나가

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고계신다.

인민을 위해서는 너무도 뜨거우시고 너무도 극진하신 우리 원수님, 인민의 결에 서 계시기만 하여도, 수수한 인민의 말 한번 들으시기만 하여도 산악같은 힘을 얻으시고 어느때나 인민에게서 무한한 정과 고마움을 느끼시며 친신만고를 다 기울이면서 마음으로 심신을 가다듬으시는 그이시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는 그 시각에도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성공을 축원해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그 새벽에도 제일먼저 인민들에게 귀국인사를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듯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못견디고 그리워하고 령도자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그 무엇으로 세도 깨뜨릴수 없고 가를수 없는 이 행성의 가장 역세고 굳건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온 나라 인민이 한마음

교육이로 보는 국가의 밝은 미래

공화국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 아래 세대들이 앞날의 기동감들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고있다.

이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는것을 교육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새 렬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교육으로 광명한 미래를 앞겨오실 운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뜻깊은 그해에 21세기 주체교육이 나아가 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남이 한것을 답습하며 뒤따라가는 방법보다는 국가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우리식 교육혁명을 이룩하시려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은 11년전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주체101(2012)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범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나라는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고 세계가 놀라웠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 이는 실로 대용단이었다.

교육기간을 12년만 늘어도

국가경제가 크게 장성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공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제를 늘이는 사업을 많은 나라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다. 이를 실현하자면 너무도 엄청난 투자가 들기 때문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새 세기 교육건설에서 일어난 하나의 혁명적이었고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만방에 떨치는 커다란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공화국을 21세기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회의에서 과학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던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공화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면시킴기 위하여 교육발전목표와 구체적인 과업들이 상정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

현대적인 거리를 일떠세우실 때마다 새로 건설한 학교들을 돌아보시며 미흡한 점이 하나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마음쓰시던 그 사려깊은 심정,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서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든 책가방과 교복, 학습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끝없이 끈고림으신 숭고한 후대사랑의 자욱자욱...

참으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범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흘러온 나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사상과 정책적인 령도 아래 나라의 교육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자기의 눈부신 발전행로에 우뚝 세운 의의는 나날이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사가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보수되어 발전시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회의에서 과학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던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공화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면시킴기 위하여 교육발전목표와 구체적인 과업들이 상정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

이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이 땅에서처럼 국가적체력육성에 애쓰는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있는 국민은 학생들은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공화국인민은 온 세상에 소리가 자랑한다.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절풍같이 내달리는 강성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장창하다고.

김명찬



수필 같은 부름, 다른 모습

머칠전이었다. 구역의 조선옷점 종업원들이 우리 학교에 찾아왔다. 학교 교원들을 위해 수직벌의 치마저고리를 지어가고 온것이였다.

옛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초급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된지 몇달밖에 안되는 나에게도 산뜻한 치마저고리가 차례였다.

매 교원들에게 치마저고리를 입혀보며 몸에 꼭맞는가, 마음에 드는가를 세심히 물어보는 조선옷점 종업원들의 열골마다에는 교육자들을 위하는 고마운 진정이 흐르고있었다.

후에 들으니 그들은 교원들을 더한히 내세우며 치마저고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천과 재제를 마련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한벌한벌 손색없이 완성하는가 온갖 지혜를 기울였다고 한다. 가슴이 후련워왔다.

교단에 갖 선 평범한 신입교원이지만 어디 가나 《선생님》으로 떠받들어주고있는 나였다.

구역안의 상징물에서는 교원우대봉사일지에 내 이름을 올리고 생활필수품을 집에까지 날라다준다. 편의봉사방에서도 선생님이 왔다고 우선적으로 봉사해주고 이웃들도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저마끔 원심을 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하면서 가슴 한가득 뜨거운 생각이 밀물처럼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다.

교육자라는 그 부름 하나만으로 만사람의 존대를 받는 우리

맞은 교원상점이며 교원양복점이며, 케드천자의 교원차석들이 눈시울을 덥히며 안겨왔다.

지금도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은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꽃다발을 삼가 드렸을 때 이 꽃다발은 내가 바를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바야 한다시며 교육자들에게 꽃다발을 도로 안겨주시던 그의 자애로운 영상이.

진정 그날의 화복은 우리 교육자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의 세계를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학생들을 국가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역군으로 키우는 교육자들을 혁명가로, 애국자로 높이 내세워주시며 대학을 찾으면 교원들에게 몸소 허리굽혀 인사하시는 우리 원수님.

섬분교와 최전연시대, 산골학교들에 자란친출한 교원들을 만나시여서는 참다운 애국자들과고, 고결한 인성을 지니고있는 사람들이라고 감탄은 믿음은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우리 어머니.

참으로 그이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떠나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 어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듯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랴.

그렇다. 교육사업을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사로 내세워주시고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있기에 우리가 선 교단은 이처럼 긍지로 빛나는것이며 온 나라에 교육을 중시하고 교원들을 우대하는 기풍이 후덜덜 굵어지고있는것이다.

그날 나는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고 애국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되새기며 보답의 마음, 충정의 마음을 다스림 가다듬었다.

서성구역 간재초급중학교 교원 리진향

머칠전 나는 공화국의 한 장애자녀성의 수기를 보았다.

17살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두다리를 잃은 때로부터 삼팔곱과 함께 서른해를 살아오는 장애자녀성.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마침내는 누구나 오를수 없는 행복과 명예의 정상봉에까지 올라선 녀인의 지나는 인생이 나에게 안겨주는 여운은 매우 컸다.

수기에는 나의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한 대목이 있다.

《...내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가정과 사회의 집의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해 맘을 바치다가 불구가 된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주의제도는 자기

그가 전국미술축전에서 한다하는 미술가들과 재능을 다투는 정쟁한 미술가로 성장하고 축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돌봐주고 더 많이 위해주는 것이다.》

신체상약점을 가지고있는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대우문제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장애자들이 어떤 사회적대우를 받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존엄과 인격, 나아가서는 운명과 관련된다.

하다면 우리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있는가. 장애자녀성의 수기 자자구구 다시 가슴에 안겨준다.

인상 좋고 인심후한 이웃들 속에서 정답게 불리워지던 《우리 3층집처녀》는 시집을 가서 술한 《헌정어머니》를 속어 살았다.

도와줄 일이 없는가고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찾아오곤 하는 인민반장어머니, 상점에서는 골목되는 상품을 라오느것은 물론 사소한것까지도 다 도맡아해주는 주민들의 인정은 진정 천어머니의 사랑과 정보다 더 뜨

운것이였다.

어찌 이뿐이라. 귀여운 딸애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장애자라곤 하여 일반사회가 국가로부터 받는 산전산후휴가와는 다르게 임신 전 기간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신체장애자이기때문이었다.

바로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사람들사이에 부여주는 사랑과 정이 그에게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스며들었고 사회적행위의 맨 앞자리에라도 항상 그의 이름이 먼저 오르게 되었다.

집문턱도 넘기 어려워하던

우리는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이 누리고있는 삶은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껏 당연한것으로만 생각했던 그것을 장애자녀성이 이야기한 《특별》이라는 말과 더불어 조명해볼수록 사회정신들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우리 국가와 제도의 은혜로움이 다시금 뜨겁게 안겨오지 않는가.

정녕 사람들의 따뜻한 보호와 방조, 국가적인 혜택속에 당당한 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행사하던 한 점 그늘없이 살아가고있는 우리

모든에게서조차 외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피폐지역의 장애자들의 비참한 운명.

장애자들이 그 어디에 가거나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비인간적인 차별사라 속에서 거리를 정처없이 방황하다가 범죄자들의 인신매매대상으로 되어 종당에는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비일비재로 목에나고있는 곳이 바로 썩어빠진 피폐지역이다.

그렇다. 특별과 차별. 글자로 따지면 단 한 글자차이지만 두 사회적대우 장애자들의 극적인 운명의 차이가 비껴있는 이 두 단어에서 나는 다시금 절감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존엄과 행복,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사람을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어 북돋아주는 살아가는 우리 나라, 따뜻한 덕과 정으로 인간세계를 아름다운 화원으로 꽃피워가는 우리 사회제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라는것을.

강성애

특별과 차별

공화국의 장애자들이야말로 열이나 복받은 사람들이다. 《특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장애자들도 누리고있는 복된 삶의 대명사라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의 장애자들이 누려가는 행복한 삶을 뜨거우속에 돌이켜볼수록 세계최악의 인권불보지 피폐지역에서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버림받고있는 장애자들의 비참한 운명이 더욱 가슴아프게 느껴진다.

언제인가 피폐지역 인민에서 사는 한 장애자가 자살을 결심하면서 남긴 유서가 있다.

《장애자는 필요없는 존재이다.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 사회에서 장애자는 죽어야 한다.》

공화국의 장애자녀성의 목소리와 너무도 상반되는 목소리. 그의 유서와 같이 든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피폐지역사회에서는 장애자들이 사회의 《장애물》, 《간간오작품》, 《집중보수 못한 숙물》로 취급되고있다. 그 어디에도 장애자들을 진정한 주인들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것이 국풍으로 되고있

장애자들을 위하여 따로 제정된 장애자녀성의 수기 자자구구 다시 가슴에 안겨준다.

인상 좋고 인심후한 이웃들 속에서 정답게 불리워지던 《우리 3층집처녀》는 시집을 가서 술한 《헌정어머니》를 속어 살았다.

도와줄 일이 없는가고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찾아오곤 하는 인민반장어머니, 상점에서는 골목되는 상품을 라오느것은 물론 사소한것까지도 다 도맡아해주는 주민들의 인정은 진정 천어머니의 사랑과 정보다 더 뜨

우리는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이 누리고있는 삶은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껏 당연한것으로만 생각했던 그것을 장애자녀성이 이야기한 《특별》이라는 말과 더불어 조명해볼수록 사회정신들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우리 국가와 제도의 은혜로움이 다시금 뜨겁게 안겨오지 않는가.

정녕 사람들의 따뜻한 보호와 방조, 국가적인 혜택속에 당당한 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행사하던 한 점 그늘없이 살아가고있는 우리

모든에게서조차 외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피폐지역의 장애자들의 비참한 운명.

장애자들이 그 어디에 가거나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비인간적인 차별사라 속에서 거리를 정처없이 방황하다가 범죄자들의 인신매매대상으로 되어 종당에는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비일비재로 목에나고있는 곳이 바로 썩어빠진 피폐지역이다.

그렇다. 특별과 차별. 글자로 따지면 단 한 글자차이지만 두 사회적대우 장애자들의 극적인 운명의 차이가 비껴있는 이 두 단어에서 나는 다시금 절감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존엄과 행복,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사람을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어 북돋아주는 살아가는 우리 나라, 따뜻한 덕과 정으로 인간세계를 아름다운 화원으로 꽃피워가는 우리 사회제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라는것을.

강성애

